

# 與 “재정여력 내 피해구제 ‘한국형 손실보상’ 기준 마련”

###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 제도 입법 논의 시작 김태년 “2월국회서 과감한 규제혁신”...국민의힘도 손실보상 간담회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손실보상 제도의 입법논의를 시작하면서 ‘재정여력 내 피해구제 방침’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국민의힘도 손실보상 관련 간담회를 열어 맞불을 놓았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당은 정부와 함께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손실보상을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과 관련, “한정된 재원에서 당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피해 구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정 여력의 범위 내에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최적의 기준선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의 사례를 참고하겠지만 우리 상황에 맞는 한국형 손실 보상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와 관련,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28일 당 규제혁신추진단이 대한상의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과감한 규제 혁신 방안을 경제단체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영업제한손실보상 역시

코로나19를 계기로 이와 유사한 팬데믹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들의 손실 보상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다”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중요한 것은 속도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당장의 어려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백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관련 입법에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빠르고 사각지대 없이, 그리고 형평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김종민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코로나19 확산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 558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부터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를 열고 “금년도 예산이 550조가량 된다”며 “이걸 재조정해서 일단 재원을 마련해야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이니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총리는 예산심의할 때 아무 소리도 안 하다가 갑작스레 손실보장을 하자고 한다”며 “중구난방식의 정부 사책을 갖고는 코로나 사태로 발생한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홍익표 정책위원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대통령이 중소기업부에 손실보상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오라고 했는데, 번지수가 잘못됐다”며 “중기부가 그런 일을 할 능력이 있는 부처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또 “대통령이 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 사태를 제대로 극복해야 앞으로 경제를 정상화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지속해서 정부에 이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보궐선거가 다가오자 경

쟁적으로 법안을 내고 현금을 살포하겠다고 한다”며 “국민 혈세로 도와주겠다고 생색내는 것은 전형적인 급권 선거로, 참으로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

## 도의회, 의장 불신임안 놓고 파행 지속

### ‘불신임안 발의’ 주류·비주류 끝없는 대결...도정 감시·민생 뒷전

더불어민주당 일색인 전남도의회가 새해 첫 본회의에서 의장 불신임안 처리를 두고 불협 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애초 예정된 2021년 도정 및 교육행정 업무보고 청취 건 등 상정된 안건은 줄속으로나마 진행이 됐지만, 지역 현안을 챙기고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데 앞장 서야 할 의회가 민생은 뒷전에 둔 채 주류·비주류로 나뉘어 자존심 싸움만 벌이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26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상정된 안건은 도정 및 교육행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개정 촉구 건의안 등 11건이었지만 관심은 김한중 의장 불신임 결의안 처리였다.

임종기(순천·2·민주당) 의원이 14명의 동료 의원과 함께 지난달 18일 의장 불신임안을 발의한 이후, 의회는 주류·비주류로 패가 나뉘어 극심한 갈등을 겪어왔다. 의회 안팎에서는 불신임안 발의에 나선 의원들은 비주류, 이에 반대하는 의장단을 포함한 다수 의원은 주류로 보면서 “상임위 배정, 5분 발언 기회 차단 등 비주류 측의 불만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의원들이 직접 선출한 의장을 집요하게 흔들고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본회의 개최 직전까지 의장 사과 등 조건을 내걸며 수용될 경우 불신임안을 철회하겠다는 비주류 측 입장이 김 의장에게 전달됐지만, “무리한 요구

로 여긴 의장단이 안건 상정 후 표결 처리 입장을 택하면서 새해 첫 본회의는 소란스러워졌다.

의장 불신임을 주장하는 일부 의원들이 “사전에 의원들에게 불신임안을 배부하지 않고 안건을 기습 상정한 것은 절차적 하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불신임안을 대표 발의한 임종기 의원은 “의사일정에 없던 불신임안이 회의 당일 기습 상정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한중 의장을 대신해 의사 진행을 맡은 구복규(민주당·화순2) 부의장은 “회의 규칙에 따라 의장 불신임 안건은 직권 상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표결을 거쳐 불신임안 처리를 내달 2일 본회의로 마무리로 결정이 나고서야 고성은 수그러들었다.

의장 불신임안은 임종기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3명과 민생당 비례대표 김복실 의원 등 도의원 14명이 지난달 18일 발의했다. 이들 의원은 광양만경경제자유구역 종합 위원 선정 부당성, 민간공화 이전 및 민주당 원내대표 추우 관련 5분 자유발언 제지 등을 불신임 사유로 들었다.

전남도의원은 현재 56명으로 더불어민주당 51명, 민생당 1명, 정의당 2명, 무소속 2명으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과 전남도의회 주변에서는 “도민들이 압도적 지지를 보내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 도의원들이 의장을 막무가내로 흔들며 한가하게 세 대결이나 벌이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

## 정의당 성추행 수습 부심

### 비대위, 재보선 무공천 검토

정의당이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의 수습 조치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전략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책임있는 사태 수습과 해결을 위해 의원단과 대표단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원단 6명과 대표단 6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회의는 차기 대표 선출 전까지 운영되며, 강은미 원내대표와 김윤기 당 대표 직무대행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대표단 총사퇴와 임시 지도부인 비대위 구성 가능성까지 거론됐으나 비상대책회의에는 기존 대표단이 포함됐다. 비상대책회의에 의원단 전원이 포함되면서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도 들어갔다.

비상대책회의는 매일 회의를 열어 4월 재보선 공천 여부를 포함한 사태 수습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재보선과 당 대표 선거 관련 사항은 일차적으로 비상대책회의에서 논의하고 주요한 의사결정은 시도당 연석회의, 전국위원회를 거쳐 하게 된다. 시도당 연석회의는 27일, 전국위원회는 30일 각각 예정돼 있다. 정의당 서울·부산시장 후보들의 재보선 선거운동도 사실상 중단됐으며, 강 원내대표는 무공천 가능성에 대해 “여러 가지 검토 대상 중 한 가지”라고 언급했다. 정의당은 조직 문화를 점검해 성평등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성위 차원의 전수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여의도 브리핑

### 소병철 “농촌 외국인 노동자 인력 부족 법무부 대책 필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구례·곡성갑) 국회의원이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각한 농촌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 인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 의원은 지난 25일 진행된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한 해 농촌 지역에서 일손을 돕던 외국인 노동자들 중 많은 수가 비자기간 만료나 코로나19를 피해 귀국을 한 반면,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입국한 인원은 급격히 감소하면서 농촌의 인력 부족 현상이 극심



실제 농번기 계절근로비자나 다른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비자는 체류 기간 연장 등의 법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하다.

해졌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농가들의 생산성이 떨어져 수익면에서도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법 개정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 윤재갑, 한·중 경제문화교육협회 ‘2020년 우수의원상’

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이 26일 한·중 경제문화교육협회 ‘2020년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윤 의원은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한국농정신문이 공동 선정한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4관왕을 수상했다.

윤 의원은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농업 분야의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정활동을 통해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공익형 직불제의 사각지대 해소, 코로나 이후 급증한 온라인쇼핑몰의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에 따른 대책 마련 추진 등 농업·농어촌 발전과 농어업인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국정감사 종료 이후에도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며 현실적인 개선책을 모색했다.

윤재갑 의원은 “코로나19와 각종 자연재해 등으로 이종고, 삼중고를 겪고 있는 농어업·농어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 재산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010-9576-8289, 직통전화 (062)464-9706**

# 동구 대인동, 싼 땅

##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 ▶ 동구 대인동 롯데백화점 옆
- ▶ 중심상업지역, 대지 515㎡(구, 156평)
- ▶ 지하 1층, 지상 9층, 64호실, 49㎡(구, 14평)  
오피스텔 허가 有
- ▶ 지하 1층 공사 중, PF 28억 확정
- ▶ 매매 - 토지 17억, 지하 공사비 3억, 총 20  
문의. 010-3605-5000